10-40 (통권 제467 호
2010. 11. 30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 행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임상수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9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 서비스 수출 경쟁력 약화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 i

1.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 1

2. 서비스 수출의 5대 문제점 ····· 5

3. 정책적 시사점 ····· 10

■ HRI 경제 지표 ····· 13

< 보고서 요약표 >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2010년 서비스 적자 사상 최대치 예상	- 2010년 10월 누적 기준 서비스 적자 17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 2010년 연간 서비스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서비스 수출 경쟁력 약화	- 서비스 무역특화지수 2000년 -0.04 → 2009년 -0.13 - 국제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 비중 2000년 2% → 2009년 1.8%

서비스 수출의 5대 문제점	
내수비중 상승, 수출 비중 하락(생산비중)	- OECD IO Table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 비중은 1995년 7.1% → 2000년 5.4% → 2005년 5.0%
운수 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업종편중)	-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에서 운수 업종의 비중은 2000년 44.8% → 2008년 58%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유발효과 축소	-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독일, 일본보다 낮음 생산유발계수 : 2000년 0.413→2005년 0.402, 부가가치유발계수 : 2000년 0.186→2005년 0.166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전년동월대비 환율 증가율과 서비스 수출 증가율 간 상관계수 2009년 2월 : 0.03 → 2010년 8월 : 0.181
서비스 수출의 대중 의존도 심화(지역편중)	- 서비스 수출에서 중국 비중 2000 : 6.4% → 2009년 16.1%

대응 방안	
글로벌 서비스기업 육성 서비스 수출 업종 다변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품질 경쟁력 제고 서비스 수출 시장 다변화	- 글로벌 제조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 유인, 서비스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 - 녹색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운수 쏠림 현상 개선 -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 확대 - 서비스 수출 R&D 지원 확대 및 고급 인력의 서비스 산업으로 유인 - 저개발 국가에 대한 ODA의 적극적 활용과 한류 마케팅 활용

SUMMARY

■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환율 하락에 따르는 경상수지 악화,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잠정치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서비스수지의 누적 적자규모는 17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10년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비스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품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8위)에서 2009년 3.7%(5위)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서비스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04에서 2009년 -0.13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로 분석대상 148개국 중 13위에서 2009년(1.8%) 19위로 하락했다.

■ 서비스 수출의 5대 문제점

첫째, (생산 비중)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내수 비중은 상승하는 반면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1%, 2000년 5.4%, 2005년 5%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중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995년 4.9%, 2.2%, 3.4%에서 2005년 8.8%, 3.6%, 9.5%로 상승했다. 이처럼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내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아 서비스 기업 간 국내 경쟁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업종 편중) 글로벌 경기와 관련이 높은 운수 서비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운수 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4.8%에서 2008년 58%로 급등했다. 운수 서비스는 상품 교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운수 서비스 수출 역시 급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중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운수 수입은 전년 대비 35.4% 감소했다.

셋째, (경제적 효과) 서비스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2005년 한국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413에서 0.402로 하락했으며, 이는 독일의 0.545, 일본의 0.5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2000년 0.186에서 0.166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독일의 0.247, 일본의 0.27보다 낮은 수준이다.

넷째, (환율 효과)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물량은 증가한다. 최근 들어 환율과 서비스 수출 간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월대비 환율 증가율과 서비스 수출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09년 2월 0.03에서 2010년 8월 0.181로 급등했다. 이는 서비스 수출이 환율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수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지역 편중) 상품 수출과 함께 서비스 수출의 중국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2000년 6.4%에서 2009년 16.1%로 급등했다. 이는 중국 경기 둔화로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모두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중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 수출 확대의 제약이 되는 5대 특징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조 기업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사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녹색 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에 민감한 운수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상컨설팅, 기상정보, 에너지절약전문업, green building 건축 등 녹색 서비스산업과 영화, 음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 R&D,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R&D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외 고급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對中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ODA를 적극 활용하고,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1.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 환율 하락에 따르는 무역수지 악화, 온실가스 감축,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르는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온실가스배출이 적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 또한 제조업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서비스와 제조업 간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달성할 수 있음

-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르는 상품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 환율 전쟁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또한 한·미, 한·EU FTA[1]가 발효 또는 발효 예정이어서,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 경쟁력 강화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임
  - · 이미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2]가 발효됨
  - · 또한 한·미 FTA, 한·EU FTA가 서명된 상태이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음
  - · 특히 서비스산업의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EU와의 FTA 체결은 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된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함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무역 자유화 협정을 의미함.
2)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으로서,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FTA에 대한 반감이 많은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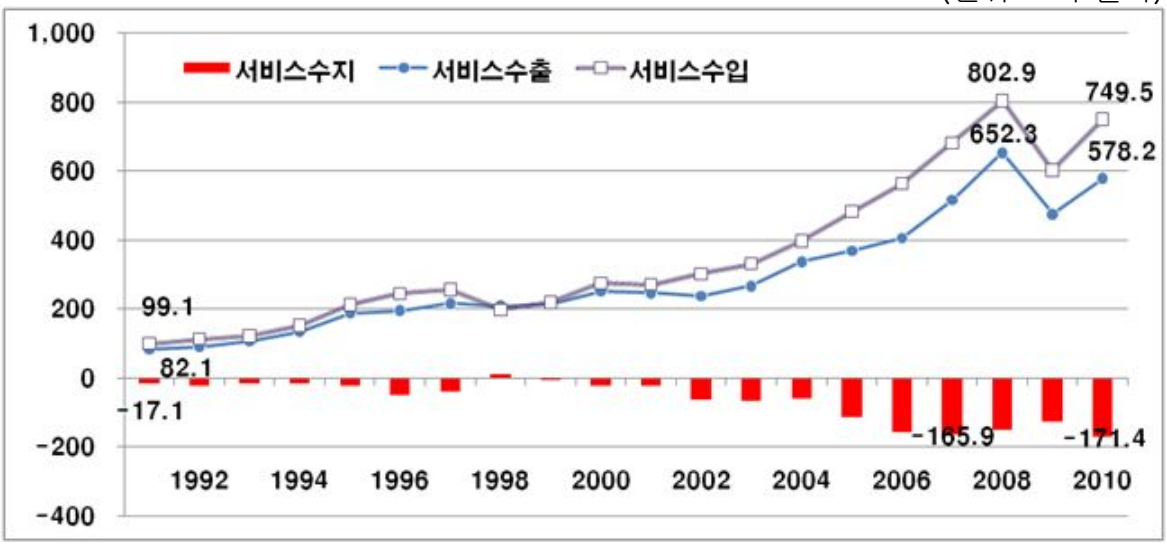
○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누적 기준으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2010년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임
  - 한국은행 잠정치에 따르면 10월 누적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0년 171.4억 달러로 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전인 2007년 10월 누적 적자 규모 165.9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임
  - 이로 미루어볼 때 2010년 서비스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임

- 이처럼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10월 누적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은 1992년 82.1억 달러에서 2010년 578.2억 달러로 6.4배 증가함
  - 반면 서비스 수입은 10월 누적 기준으로 1992년 99.1억 달러에서 2010년 749.5억 달러로 6.6배 증가함

< 서비스 수지의 1월~10월 누적 적자 추이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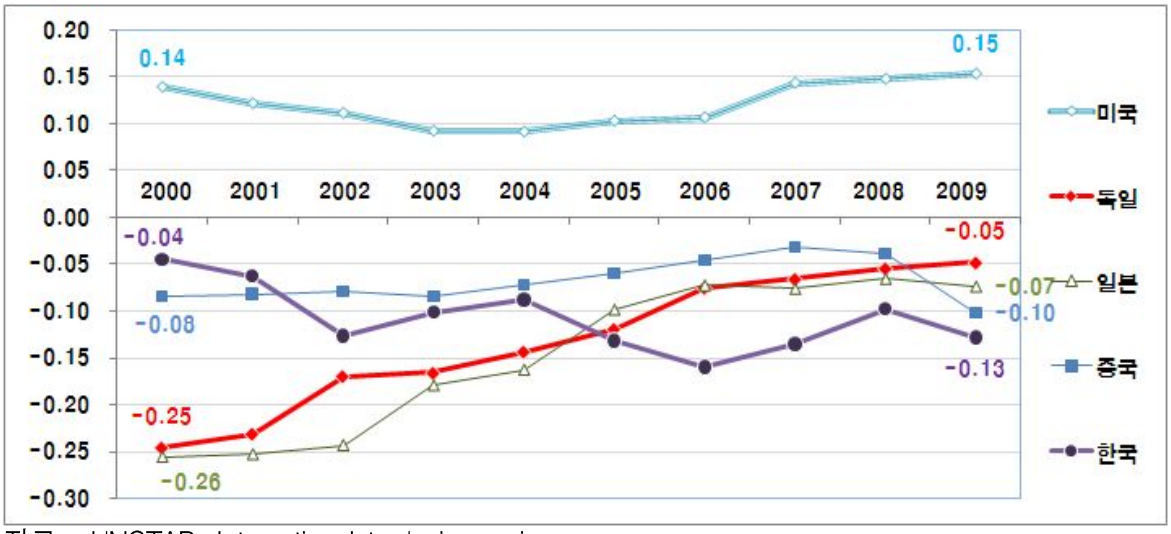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처럼 서비스 수지 적자의 지속은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특화로 분류됨
  - · 일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지(수출-수입)를 교역액(수출+수입)으로 나눈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함
  - ·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음을,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커짐을 의미함
  - · 2009년 통계 데이터가 허락한 148개 국가 중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100위를 기록함
  - · 더욱이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2002년 이후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 독일은 개선되고 있음
  - ·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2000년 -0.04에서 2009년 -0.13으로 악화됨
  - · 반면 독일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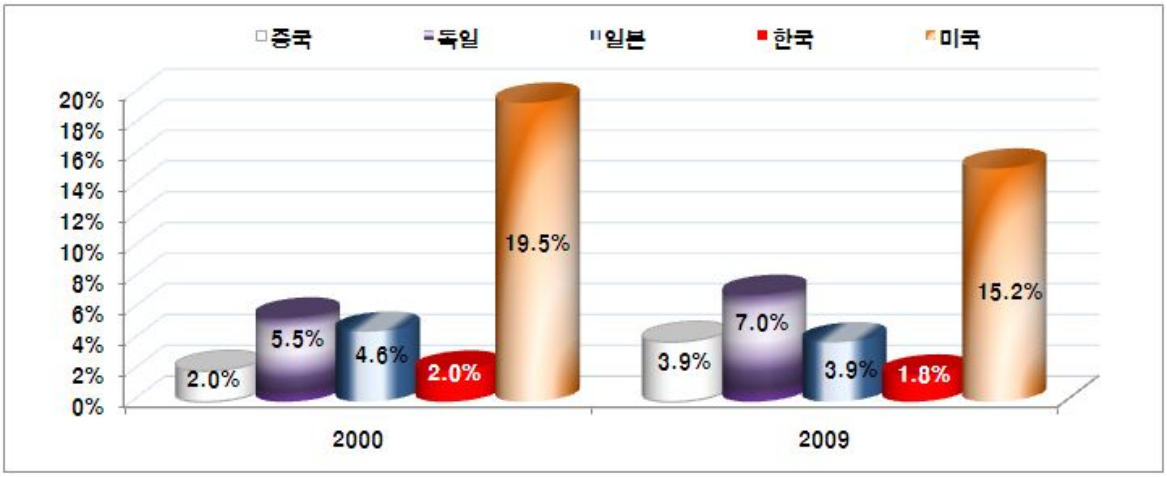
자료 : UNCTA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 또한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한국, 일본, 미국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2000년 2%로 분석대상 148개국 중 13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1.8%로 19위를 기록함
  - 반면 상품 수출 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분석대상 2000년 3%로 분석대상 216개국 중 8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9년에는 3.7%로 5위를 기록함
  - 미국의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19.5%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15.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을 유지함
  - 일본은 2000년 4.6%로 미국(19.5%), 영국(7.9%), 독일(5.5%), 프랑스(4.6%)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9%로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함

- 반면 독일과 중국이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독일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09년 7.0%로 상승했으며, 순위 역시 3위를 유지함
  - 중국의 비중은 2000년 2%로 한국보다 1단계 낮은 14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9%로 5위를 기록함

<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주요 국가의 비중[3] >



자료 : UNCTA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148개국의 2000년과 2009년 비중은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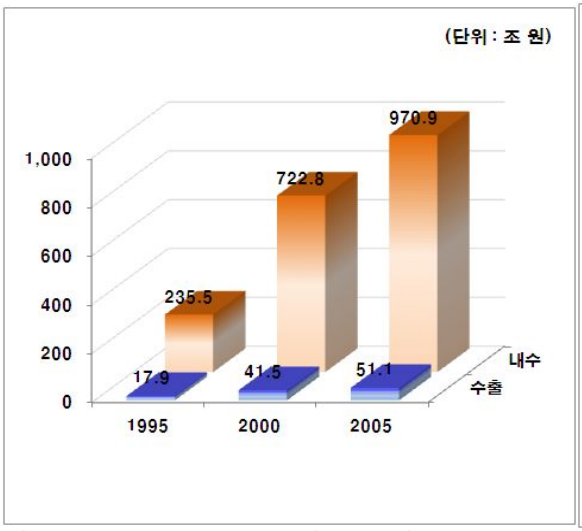
2. 서비스 수출의 5대 문제점

○ 첫째, 서비스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내수 비중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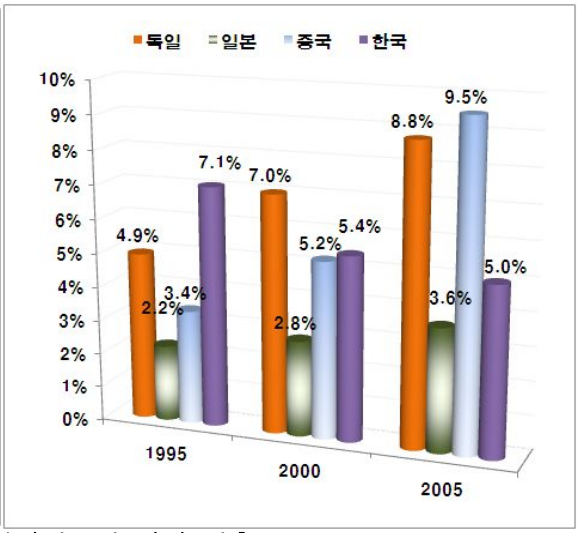
- 서비스 수출보다 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4)]
  -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995년 17.9조 원에서 2005년 51.1조 원으로 185.2% 증가한 반면 서비스 내수는 1995년 235.5조 원에서 2005년 970.9조 원으로 312.2% 증가함

- 독일, 일본, 중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 독일, 일본, 중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9%, 2.2%, 3.4%에서 2005년 8.8%, 3.6%, 9.5%로 상승함
  - · 반면, 한국의 서비스 생산에서 수출 비중은 1995년 7.1%, 2000년 5.4%, 2005년 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이는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어 국내 경쟁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 한국 서비스 수출 및 내수 추이>



< 서비스의 수출 및 내수 비중 추이>



자료 :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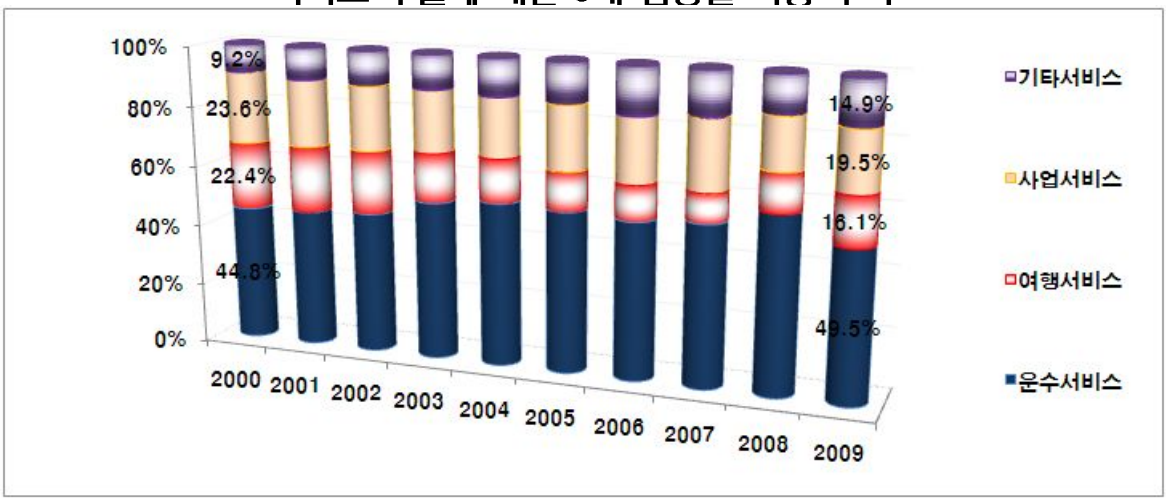
4) OECD IO Table에서 총수요를 수출과 내수로 구분함.

○ 둘째,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세계 제조업 경기와 관련이 높은 운수 서비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음

- 여행과 사업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는데 반해 운수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 ·3대 서비스의 수출 비중의 합은 하락하고 있어 서비스 수출의 편중도는 완화되고 있음
  - ·그러나 운수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4.8%에서 2008년 58%로 급등했으며, 단지 2009년에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에 비해 8.5%p 하락한 49.5%를 기록함
  - ·여행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2000년 22.4%에 2009년 16.1%로 하락했으며, 사업서비스는 2000년 23.6%에서 2009년 19.5%로 하락함

- 운수 서비스는 상품 교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운수 서비스 수출 역시 급감할 가능성이 큼
  - ·운수서비스 수출 중 70% 이상이 해운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음
  -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해운 경기 침체로 2009년 운수 수입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289.4억 달러를 기록함

< 서비스 수출에 대한 3대 업종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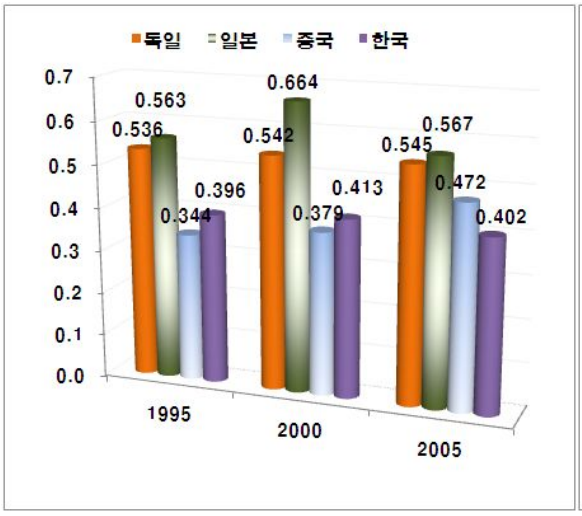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셋째,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수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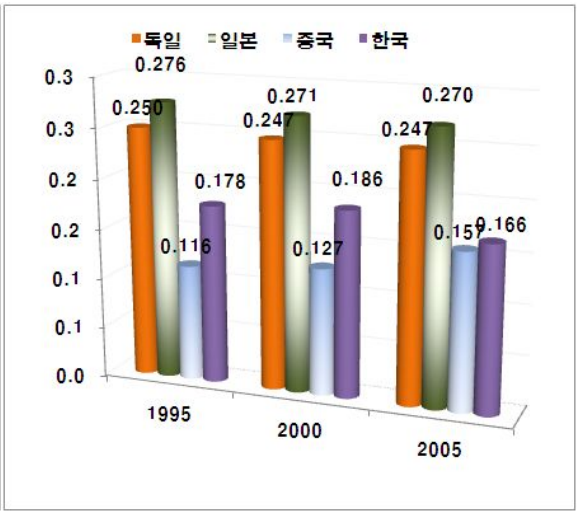
- 서비스 수출의 생산 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음
  - · 서비스 수출의 생산 유발효과는 서비스 부문 수출 1단위 증가했을 때 유발되는 국내 생산의 증가량으로 국내 생산 활동과 관련 있음
  - · 한국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0.396에서 2000년 0.413으로 상승했으나, 2005년 0.402로 하락했으며 독일과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함
  - ·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0.344, 2000년 0.379, 2005년 0.472로 상승세를 이어감

-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낮아지고 있음
  - ·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서비스 부문 수출 1단위 증가했을 때 유발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량으로 GDP와 관련 있음
  - · 한국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178에서 2000년 0.186으로 상승했으나, 2005년 0.166으로 하락했으며, 독일과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함
  - · 반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116, 2000년 127, 2005년 0.159로 상승세를 이어감

< 서비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



<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자료 : OECD 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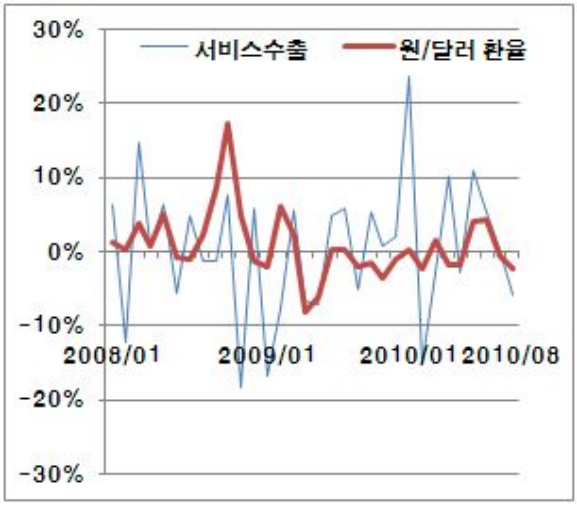
○ **넷째, 환율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환율과 서비스 수출은 양의 관계에 있음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은 하락하고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물량은 증가함
  -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가격 하락 효과보다 수출 가격 하락에 의한 수출 물량 증가효과가 큰 것이 일반적임

- 전월대비 환율 증가율과 서비스 수출 증가율 간 상관계수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음
  - 상관계수는 2009년 2월 0.03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8월에는 0.181로 급등함
  - 상관계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환율이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있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이처럼 서비스 수출은 환율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와 함께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

<전월대비 환율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환율과 서비스수출 간 상관계수[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산출.

5) 2010년 8월의 상관계수 0.18은 2005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의 전월대비 증가율과 서비스 수출의 전월대비 증가율관 상관계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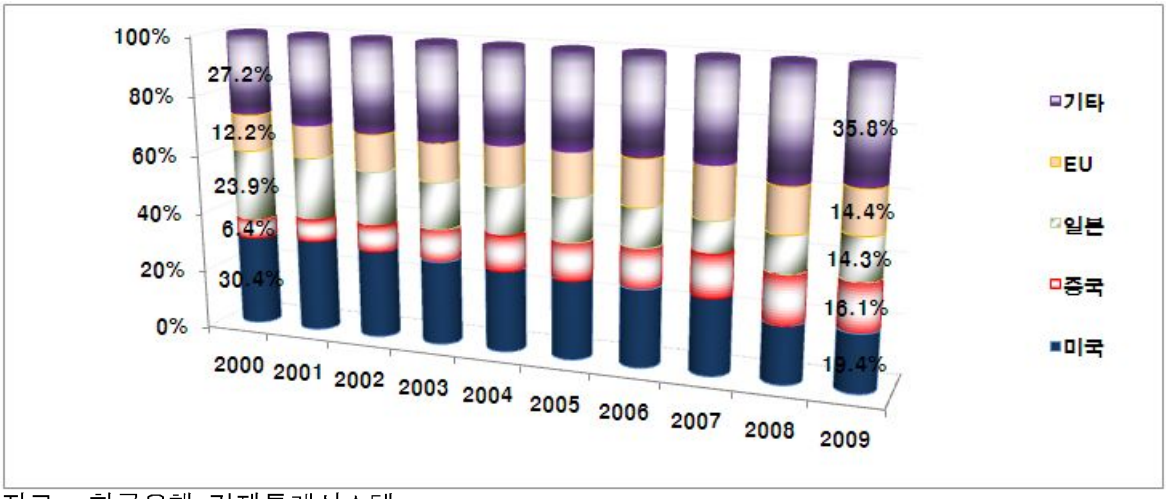
○ 다섯째, 서비스 수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상품 수출과 함께 서비스 수출의 중국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상품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상품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2000년 만해도 미국, EU,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3년 이후 교역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중국,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상품 수출과 같이 일부 국가에 대한 편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의존도는 2000년 6.4%에서 2009년 16.1%로 급등함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경상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서비스 수출에 대한 국가별 비중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정책적 시사점

○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함께 경상수지 목표제 합의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어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첫째,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제조 기업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M&A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서비스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동 브랜드 사용을 통한 브랜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둘째, 녹색 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에 민감한 운수 수출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함

-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감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적응[6]과 관련된 기상컨설팅, 기상정보, 에너지절약전문업, green building 건축 등과 같은 녹색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한류를 적극 활용한 현지 마케팅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해야 함

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온실가스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감과 저감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늦추어졌으나 여전히 지구온난화는 진행될 것이므로 지구온난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응으로 구분함.

- 디자인, R&D,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정보, 수출 보험 제도 등 수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 기관 설립 및 석박사 고급 인력을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유인하는 등 지식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비해야 함

- 서비스 수출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수출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산업의 R&D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서비스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과 국내 고급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출입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거주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덴마크의 'Business PhD'와 'Knowledge Pilots' 등과 같은 고급전문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7]

○ 다섯째, 서비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對中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함

- 컨설팅, 법률 및 회계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등 사회 서비스와 같이 저개발 국가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정부의 ODA[8]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임

---

7) 산업연구원(2008.12)의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체에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Business Phd'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의 절반을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Knowledge Pilots'는 중소기업이 고급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8)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술 및 자금을 원조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임HRI

【별첨】 2009년 기준 서비스수출 비중 순위

순위	국가	2000	2005	2009
1	United States	19.472%	15.392%	15.181%
2	United Kingdom	7.921%	8.296%	7.116%
3	Germany	5.471%	6.655%	6.955%
4	France	5.441%	4.882%	4.315%
5	China	2.002%	2.972%	3.895%
6	Japan	4.555%	4.403%	3.860%
7	Spain	3.451%	3.782%	3.697%
8	Italy	3.721%	3.564%	3.087%
9	Ireland	1.220%	2.394%	2.911%
10	Netherlands	3.245%	3.199%	2.807%
11	India	1.098%	2.098%	2.740%
12	Hong Kong	2.660%	2.545%	2.596%
13	Belgium	3.276%	2.243%	2.435%
14	Singapore	1.853%	2.127%	2.221%
15	Switzerland	2.020%	1.988%	2.119%
16	Sweden	1.332%	1.713%	1.844%
17	Luxembourg	1.336%	1.631%	1.839%
18	Canada	2.647%	2.230%	1.777%
19	**Korea**	**2.009%**	**1.803%**	**1.760%**
20	Denmark	1.561%	1.693%	1.655%
21	Austria	1.519%	1.701%	1.598%
22	Russian Federation	0.629%	0.997%	1.255%
23	Australia	1.309%	1.240%	1.244%
24	Norway	1.166%	1.196%	1.149%
25	Greece	1.266%	1.355%	1.136%
26	Turkey	1.285%	1.069%	0.999%
27	Taiwan	1.316%	1.032%	0.932%
28	Thailand	0.912%	0.805%	0.908%
29	Poland	0.684%	0.649%	0.871%
30	Malaysia	0.917%	0.782%	0.864%

자료 : UNCTAD Statistics.
주 : 글로벌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각국의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2072-6239)

HRI 經濟 指標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P			2010P				2011E
				3/4	4/4	연간	1/4	2/4	3/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1.0	6.0	0.2	8.1	7.2	4.5	5.9	4.3
	민간소비 (%)		1.3	0.7	5.8	0.2	6.3	3.7	3.3	4.2	3.8
	건설투자 (%)		-2.8	4.4	5.0	4.4	2.3	-2.9	-2.1	0.2	1.5
	설비투자 (%)		-1.0	-7.0	13.3	-9.1	29.9	30.2	25.2	20.0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8	104	106	427	13	103	121	300	197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133	102	124	405	30	145	116	400	297
		수출 (억 $)	4,220	948	1,040	3,635	1,011	1,203	1,173	4,516	5,003
		증감률 (%)	(13.6)	(-17.6)	(11.7)	(-13.9)	(35.8)	(33.1)	(23.7)	(24.2)	(10.8)
		수입 (억 $)	4,353	848	929	3,231	981	1,058	1,507	4,114	4,707
		증감률 (%)	(22.0)	(-31.0)	(1.4)	(-25.8)	(37.4)	(43.0)	(24.5)	(27.3)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0	2.4	2.8	2.7	2.6	2.9	2.9	3.0
실업률 (%)			3.2	3.6	3.3	3.6	4.7	3.5	3.5	3.8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8	75	62	76	78	74	78.8	88.7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39	1,168	1,276	1,143	1,165	1,184	1,159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